“어려운 이웃이 행복해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핀스튜디오

제29회 아산상 시상식에서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주요 수상자들과 함께했다. 오른쪽부터 유동수 한국구라봉사회 회장(의료봉사상),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아산상), 신명자 복음자리 이사장(사회봉사상).

제29회 아산상 시상식이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 동관 6층에 자리한 대강당에서 열렸다. 그동안 아산상 시상식은 서울아산병원 단지 내의 아산생명과학연구원 1층 강당에서 주로 진행해왔으나, 수상자 가족과 동료 등 참석자들이 많아서 수상자와 축하객이 불편 없이 참석하고, 서울아산병원 직원들도 아산상 수상자의 봉사와 나눔정신을 느낄 수 있도록 병원 대강당으로 옮겨 개최하게 됐다.

또한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탄신일인 11월 25일에 시상식을 개최했는데, 올해는 그날이 토요일이어서 날짜도 변경했다.

시상식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이홍구 · 이춘림 · 장정자 · 이상주 · 김종인 · 한승주 · 김유후 · 정진규 · 김태현 · 이병규 · 최재성 이사와 최종원 감사 등 아산재단 임원, 남궁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김영화 홍익대 사범대학장 ·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총장 · 권대봉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 최혜경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2013년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이정호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 관장 등 역대 수상자와 윤석화 한국연극인복지

심사 과정을 설명하는 이병규 아산상 심사위원장과 인사말을 하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왼쪽부터).

재단 이사장 등 내빈, 수상자와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아산상은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됐다.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가족사랑과 나눔정신을 실천한 이들을 매년 발굴해 시상하면서 설립자가 우리 사회에 전하고자 했던 인간존중의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아산상은 대상인 아산상과 의료봉사상 · 사회봉사상 · 특별상 · 복지실천상 · 자원봉사상, 그리고 효행 · 가족상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상금은 아산상 3억 원, 의료봉사상 · 사회봉사상 · 특별상은 각 1억 원이고, 나머지 부문은 각각 3천만 원이다. 올해는 아산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특별상 수상자(단체)가 없어서 6개 부문의 수상자 12명(단체)에게 총 7억7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제29회 아산상은 지난 6월부터 각 기관에서 추천받거나 재단 사무처가 발굴한 316건의 후보에 대해 예비심사와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 본심사와 심사위원단 추가 현장실사를 벌인 데 이어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홍구)를 개최해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최선 다해 그늘진 곳 줄이겠다"

시상식은 이병규 아산상 심사위원장의 심사 보고에 이어 각 부문 수상자(11p. 상자기사 참조)에 대한 시상과 주요 상 수상자(단체)의 공적을 소개하는 영상물 상영,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주요 상 수상자(단체)의 수상소감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분들이 아버님은 어려움을 별로 겪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아버님은 강원도 통천의 두메산골에서 태어나셔서 젊은 시절에 노동자 합숙소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시기도 했고,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는 부도를 막기 위해 밤낮 없이 돈을 구하러 다니곤 하셨다. 사업 초창기에는 살던 집까지 팔아가며 고생을 하셨다. 이런 고생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기업을 일구시고, 성공을 거두신 후에는 일구신 기업의 주식 절반을 기부해 1977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셨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 대해 말하지만, 당시에는 복지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다"고 아산재단의 설립 배경을 설명한 뒤 "아버님은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1989년에 아산상을 제정하셨는데, 오늘 수상자들을 포함하여 모두 791명이 수상하였다. 점점 각박해지는 우리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산상 수상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산상 수상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부터 효행 · 가족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상훈 · 윤정희 부부까지 12명(단체)의 공적과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며 격려한 정몽준 이사장은 "2017년은 재단 설립 4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아산재단이 그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우리 재단의 설립이념을 늘 마음에 새기고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어려운 이웃이 행복해지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므로 아산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아산상은 국내 최초의 가정 · 성폭력상담기관인 한국여성의전화(관련기사 12~15p.)가 수상했다. 1983년 설립된 여성의전화는 34년간 여성 폭력을 사회문제로 인식시키고, 관련 법률의 제 · 개정을 이끌어냈다. 1987년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쉼터가 2017년에 설립 30주년을 맞는 등 폭력피해여성

수상 소감을 전하는 수상자들. 왼쪽부터 대상인 아산상을 수상한 한국여성의전화의 고미경 상임대표,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수상 단체인 한국구라봉사회 유동수 회장과 복음자리 신명자 이사장.

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해왔다. 여성의전화는 서울의 본부와 전국 25개 지부로 구성됐으며, 산하기구로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쉼터를 운영 중이다.

여성의전화 고미경(50) 상임대표는 "한국 사회에 뿌리 깊게 내린 여성과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는 사회적 편견에 맞서 '고통받는 여성들과 함께하겠다'는 창립정신을 잊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겠다.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 여성에 대한 폭력 없는 평화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의료봉사상에는 48년간 한센인들을 격리 수용했던 소록도와 한센인 정착촌을 찾아가 한센인들에게 무료 틀니 제작 등 치과봉사를 해온 한국구라봉사회가 선정됐다(관련기사 16~19p.). 서울대 치대 출신으로 구성된 구라봉사회는 1969년부터 2017년까지 6,550명(치과의사 2,089명, 치대 본과 학생 3,890명, 기공사 571명)이 참여해 895일 동안 한센인 34,328명을 진료하고, 국내 한센인 의치의 80% 가량인 4,650개의 의치를 무료로 제작해주었다.

유동수(84) 구라봉사회 회장은 "우리들은 48년간 한센인 치과진료를 해오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 순수 민간단체로서 자원봉사자들과 독지가들의 힘으로 이 많은 일들을 해냈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봉사를 가르쳐왔다. 이번에 아산재단에서 우리가 소외계층과 불우한 사람들에게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회봉사상에는 재개발로 도시에서 내몰리는 집 없는 빈민들을 위해 공동체운동을 벌여온 복음자리(관련기사 20~23p.)가 선정됐다. 1975년 고 제정구 의원과 정일우 신부가 서울 양평동 판자촌에 복음자리사랑방을 개설하며 비롯된 복음자리는 양평동과 난곡, 목동 철거민을 대상으로 경기도 시흥에 새로운 삶의 터전인 공동체를 만들었다.

1990년대 들어 제도권 내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복음자리는 1996년 사회복지법인으로 형태를 바꾸어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등 9개 복지기관을 운영 중이다. 제정구 의원의 부인으로 복음자리를 이끌고 있는 신명자(64) 이사장은 "최근 들어 복음자리가 어떻게 주민의 지역사회로 녹아들어 가는지 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목을 받는 듯하다. 이번에 큰 상을 받은 것도 변화된 사회 안에서 훌륭한 설립자들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힘이 되고, 빛이 되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예의

복지실천상은 김학영(55), 문지호(42), 김소영(42) 3명의 복지기관 사무국장이 수상했다.

김학영 청음회관 사무국장은 청각장애 복지분야 전문가로서 청각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복지발전에 기여해왔다. 문지호 마리아마을 사무국장과 김소영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각각 사회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노숙인들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자원봉사상은 사랑의밥차(채성태 대표)와 김태식(69) 김해이용원 대표, 박준영(43) 박준영변호사법률사무소 대표가 받았다.

사랑의밥차는 전문 조리설비를 갖춘 급식차량으로 19년간 복지시설과 재난현장 등에서 급식봉사를 해왔다. 김태식 이용사는 1993년부터 24년간 한센인 · 노인 · 장애인시설 등에서 매주 이 · 미용 봉사활동을 펼쳐왔고, 영화 '재심'으로 잘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법률봉사를 통해 인권침해와 불법수사 방지에 기여해왔다.

효행 · 가족상 수상자로는 박미경(50), 권순옥(61), 김상훈

①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제29회 아산상을 수상한 한국여성의전화 고미경 상임대표와 함께했다. ②이홍구 아산재단 이사와 의료봉사상과 사회봉사상 수상 단체인 한국구라봉사회 유동수 회장, 복음자리 신명자 이사장(왼쪽부터). ③복지실천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한승주(왼쪽 끝) 아산재단 이사가 해주었다. 오른쪽부터 문지호 마리아마을 사무국장, 김학영 청음회관 사무국장, 김소영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④자원봉사상 시상 뒤. 오른쪽부터 사랑의밥차 채성태 대표, 박준영 변호사, 김태식 김해이용원 대표, 김종인 아산재단 이사. ⑤김태현 아산재단 이사(왼쪽 끝)가 효행 · 가족상 수상자들과 함께했다. 오른쪽부터 박미경 · 권순옥 씨, 김상훈 · 윤정희 부부와 자녀들.

(57) · 윤정희(52) 부부가 선정됐다. 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박미경 씨는 만성신부전과 간경화 등으로 병상에 있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간호하며 자녀 양육에 힘써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 영양에 사는 권순옥 씨는 자녀 4명 외에 오갈 데 없는 조카 두 명을 20년간 친자식처럼 키운 한편 노모를 봉양하며 지역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강릉의 김상훈 · 윤정희 부부는 네 번의 유산을 겪은 후 출산을 포기하고 열 명의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점점 퇴색해가는 가족의 의미를 되살려주었다.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는 일찍이 무의촌 오지에 병원을 세우고 생활이 힘든 이웃과 학비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면서도 항상 그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어려운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예의"라고 말했다. 2017년 제29회 아산상 수상자들은 설립자의 말처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인간의 예의'를 몸소 실천한 사람들이었다.

제29회 아산상 수상자 • **아산상** 한국여성의전화 • **의료봉사상** 한국구라봉사회 • **사회봉사상** 복음자리 • **복지실천상** 김학영(청음회관 사무국장) 문지호(마리아마을 사무국장) 김소영(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 **자원봉사상** 사랑의 밥차(채성태 대표) 김태식(김해이용원 대표) 박준영(박준영변호사법률사무소 대표) • **효행 · 가족상** 박미경(경북 상주) 권순옥(경북 영양) 김상훈 · 윤정희 부부(강원 강릉)